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오늘은 기독교 삼대절기 중의 하나인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것을 축하하며 주일공동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성도의 교제를 예배 중에는 성찬식으로, 오후에는 탁구대회로 표현합니다.
- 예배후에 이어서 교회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 멋쟁이학교 학부모 모임이 다음 주일(12일) 오후 3시에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 공동체운영위원회 30차 정기회의는 19일에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정이안 학생 ( 생일 감사 )  
이승호 집사 ( 오봉순 어머니 생신 감사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23 호

2022년 6월 5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사랑 충만

5월 가정의 달을 지나 6월의 첫 주입니다. 가정의 달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뜻깊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정미 달이 되면 꼭 생각나는 재미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라디오에 나오셔서 부부 퀴즈를 맞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남편분께서 '천생연분'을 두고 문제를 내길 "나하고 당신 사이를 네글자로 하면~~" 그랬더니 아내 되시는 분이 대뜸 "평.생.웬.수."하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예화를 들으며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재미있는 말이지요.

"평. 생. 웬. 수"

원수에 대해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자기에게 해를 끼쳐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원한은 뭘까 싶어 또 찾아보았더니 '몹시 분하고 억울하여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 이라고군요. 그렇지~!!

평생원수를 이 단어의 뜻을 빌어 조금 풀어 말하자면 "평~생 나에게 해를 끼쳐 내 마음을 분하게 하여 가슴속에 응어리지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로 남편과 아내를 원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정말 가끔은 말 그대로의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부부 관계뿐 아니라 자식이, 부모님이, 형제들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원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일 테니까요. 그리고 나아가 친구와 이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주요 인물들이 됩니다.

이런 원수들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관계를 단절하여 피하거나 아니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마음으로 보복을 하지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처지를 나눈다는 핑계로 뒷담화를 한 바가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확히 말씀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마 5:44-47)

내 맘에 딱 맞고 나에게 좋게만 하는 그 누군가만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일까?

나의 시간을 빼앗고 나의 자유를 빼앗고 또 나의 의견을 버려야 하고 굽혀야 하는 사람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없어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가끔은 내 맘에 분을 품게 하고 응어리지게 하는 원수들. 이들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랑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 우리의 사랑의 근간을 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서일기로 요즘 함께하고 있는 요한일서 말씀에서도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10-11)

성령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 충만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기대한다면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세상이 이상히 여기는 놀라운 사람들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더불어 사랑 충만을 기대해 봅시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 한주간의 말씀

“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성경 : 요한일서 4장 1~12절

제목 : 서로 사랑하자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299 304 283 218

#### 관찰]

- 1~3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다. [영]
2. 4~6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말을 듣는다. [말]
3. 7~12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사랑]

#### 해석]

1.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2.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며 그분 통해 우리는 이겼다.
3.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자.

#### 적용]

1.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 하신 일을 믿자.
2. 말의 전쟁터에서도 확신을 가지자.
3.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사랑을 완성하자.

## 공동체적 성령 이해

20세기에 들어 전 세계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전대미문의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근자에 성령의 사역에 대한 관심이나 갈망이 그 성서적인 기초를 떠나, 대단히 개인주의적이고, 기복적인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이다. 물론, 성령은 개인에게 임하여 그를 거듭나게 하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며, 때로는 놀라운 이적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심지어 이기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종종 '영'을 강조하고 찾는 어떤 이들이 '물질'의 욕심이나, '물질적' 성취와 성공에 집착하는 것은 무슨 아이러니인가? 우리들이 성령을 갈구하는 이유는 신비 현상이나 기적을 체험해 보고 싶은 호기심 때문인가, 혹은 성령의 신령한 능력으로 타인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인가, 혹은 개인적인 성공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서인가?

성령은 오늘날도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의 삶에 임하시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때때로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성령의 역사를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

.....성령의 공동체적 차원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 새롭게 강조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종종 개인주의적 편향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한 추상적 개인으로서 구원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적 차원에 대한 강조가 지나쳐 성령을 인간집단 안에 내재하는 한낱 공동체 정신으로 전락시키거나, 이 세상에서 사회변혁을 일으키는 하나의 혁명정신, 혹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우주에 내재하여 생태계를 움직이는 우주혼 정도로 치부하여서도 안된다. 만인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공동체를 새롭게 갱신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요한복음 14 : 15-18 인도자  
5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8 : 1-2 인도자  
185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정태일 목사

사도행전 2 : 1-13 설교자  
183 공동체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191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기환 차현주 / 봉헌위원 : 김성기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 공동기도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많이 닮은 인격과 삶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이 임재하시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  
다. “그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  
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의 솟아오를 때 헛바  
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  
려앉았다.” <2-3>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재하신 것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4> 되었다고 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양  
식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  
는 모습입니다. <요14:16-18>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는 말은 영  
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  
을 닮았고 예수님과 연합의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요14:20-26> 그러  
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인격을 많이 닮았고,  
예수님과 연합의 삶이 짝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 예수님  
의 교훈과 행하심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주변에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롬8:9> “예수는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 되  
십시오. <고전12:3>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  
오. <엡5:18>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 <엡6:17> 매일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이재신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꾸러기들은 남녀의 차이와 신체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성교육을 통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는지, 남자와 여자의 몸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의 몸은 소중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주부터 3일에 걸쳐 성교육을 하면서 마지막날인 월요일에 소중한 우리 몸을 지키는 연습을 했습니다. “싫어요! 안돼요! 도와주세요!”를 씩씩하게 말하는 꾸러기들이 어느 때 보다 능글하고 진지하게 잘해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꾸러기들이 오랜만에 서울대공원 동물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동물원은 들어가는 것부터 특별했습니다. 코끼리열차와 리프트를 타면서 꾸러기들의 흥분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미리 얘기했던 보고 싶던 동물들을 차례대로 보면서 아이들은 점점 더 열심히 동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간 상 모든 동물은 못 봐도 희망한 동물들은 거의 다 보고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늦게 하교를 했지만 다양한 동물들을 알게 되고 좋아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봤던 동물들 중 책으로 있는 건 다 찾아보면서 생생한 기억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단오가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꾸러기가 제일 좋아하는 창포머리감기와 수리취떡 만들기를 했습니다. 창포를 넣고 끓인 물은 향긋한 향이 나며 머리를 감으니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져서 꾸러기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수리취떡은 처음 만들어보는데 떡을 반죽해서 동그란 무늬에 도장을 찍어 무늬를 내서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장미숙권사님이 함께 만들었는데 간을 딱 맞춰주셔서 너무 맛있게 떡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떡을 공동체 식구들에게 나누는데 꾸러기들이 나눠주는 게 기분이 좋으며 신나게 뛰어가서 떡을 나눴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 어린이학교

새로운 달이 시작 되었습니다. 새로운 말씀으로 한달을 지내게 됩니다. 이번 유월 말씀은 시편 145:17~18절 입니다. 3학년이 외우기 쉽도록 손유희를 만들어 함께할 것입니다.

배움과 가르침

지난주는 오월을 마무리 하며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캠프여행때 한마음으로 평화를 이루며 지낸 조는 레인보우스타라는 이름으로 활약한 은찬수민 윤아 민용이었는데 멋진 티셔츠를 상품으로 받았습니다.

최고의 조장으로 리더쉽과 섬김을 발휘한 친구로는 민상이었는데 에버랜드 간식 오전원권을 받았습니다.

모두 훌륭했어서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아서 조장들에게는 또 다른 이벤트를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아, 림보에서 전교 1등을 한 아영이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ㅎㅎ

또다른 시상 하나는 도서관 책 대출 후 반납 할 때 마다 뽑기를 하는데 뽑은대로 주어지는 상품이 입니다. 기대 속에서 맛난 주전부리 꺼리로 책을 많이 읽은 만큼 많은 상품을 안고 집으로 갔답니다.

이렇게 한달을 마무리 하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어린이학교 소식입니다.

< 교사 : 하경임 >

### 멋쟁이학교

지난주 수요일, 2022 지방선거일에 멋쟁이들은 안양천변 일대에서 진행된 '애프터눈 마라톤'을 뛰고 왔습니다. 부상 있는 학생들은 5km, 그 외 학생과 선생님은 10km를 달렸습니다. 출발 전 선선했던 날씨가 점차 내리쬐는 별이 되어 다소 힘들었지만 다행히 모두 무사 완주하였습니다~!

목요일 공동 심화 시간에는 '트렌드'라는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8주차에서 2주를 더 추가하여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멋쟁이들이 발견한 메가 트렌드에 관심 있는 분야별로 모둠을 나눠 트렌드를 직접 만들고 경험해 보기 위한 기획안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린 수업 시간에는 학년별 여행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등등 모두가 같을 수 없기에 서로 배려하고 양보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멋쟁이들이 쑥 크고 있다고 믿습니다. ㅎㅎ

이번 주 월요일은 현충일로 일요일에 등교하지 않고 월요일 저녁에 등교합니다. 현충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며 가정에서 잘 쉬고 오면 좋겠습니다 ~ ^^

< 교사 : 박예나 >

## 함께하는 가족이 늘었습니다

올해 초 저희 가정에 식구 한명이 더 늘었습니다. 저로서는 처남, 진용이와 민용이에게는 외삼촌이 사정상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는 식탁에 손가락이 하나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살기 전까지는 매주 한번씩 보면서 맛있는 것도 같이 사먹고, 재미있는 것도 함께 보던 터라 함께 지내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외삼촌은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이들에게 잘 해주고 싶어 간식도 사주고 부모가 잘 해주지 않는 재미있는 영상도 보여주면서 즐거움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삼촌이 잘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 좋고 편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신경 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가족끼리만 있었을 때는 아침에 간혹 시끄럽게 해도 이해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쉬는데 방해 될까봐 아침과 저녁 시간에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부탁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도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해 줄 수는 없고 고집을 부리거나 다툰 때 한마디씩 하는 말들이 잔소리로 들리기도 해서 속상해 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불편해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삼촌과의 사이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하루는 삼촌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삼촌과 두 아이는 새로운 게임을 하고 왔으면서 경험담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아이들 마음을 잘 아는 삼촌이 부모는 잘 안 해줄 만 한 놀이를 함께 하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즐거운 것은 함께 하고 싶어서 다음에는 다 같이 가서 하자고 합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좋기도 하고 서운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고 서로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할 이유로 기뻐하기도 하고 속상해 하기도 하면서 한 가정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입장과 관계를 맺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단조로울 수 있는 가정이었으나 외삼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넓은 관계를 깊게 맺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서운하고 힘든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경험으로 각자의 삶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한 가정으로 좋은 기억을 더 많이 만들어야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최기찬 전도사

##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요한1서 4장 11절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기 도 :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총기난사 사건들 >

지난 5월 24일 미국의 록 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2명이 사망했고, 그 중 19명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총기 학내 참사는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인데다, 피해자가 입는 고통의 강도와 깊이가 성인보다 훨씬 크고, 주변 지역 청소년에도 불안함과 우울감을 퍼뜨립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발벗고 나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민들레 공동체>

- (1)민들레학교 교사초빙, 학생모집 및 민들레대학 운영위해
- (2)치유와 회복을 위한 공동체 공간디자인 및 작업
- (3)선교사,목회자 지원 사역을 위해서

###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하여 >

- (1) 성령강림절에 모든 교인이 한 마음으로 모이고, 은혜를 받도록
- (2) 6월 1일에 뽑힌 각 지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이 실감이 납니다. 햇볕이 강렬해지고 나무들의 잎이 짙은 녹색을 띠며 아이들의 얼굴이 열기에 발갱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느티나무 그늘이 있어 더위를 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의 진정세가 지속되면서 공동체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과 기독교학교육연구소 연구원들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공동체를 찾으실꺼라 여겨집니다. 지속적인 주변 시설 정비와 영농 관련 일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생활공동체 식구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며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장영미 전도사>